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여기는 일과 함께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자기실현의 욕구충족을 위해 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차츰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나 실질적인 여가참여 인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이전에는 여가를 일부 특권 계층만이 누리는 향유물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일반 대중 모두가 즐기는 보편화된 생활의 일부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는 산업社会의 특성인 기계화, 문명화로 인한 개인의 여가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의 변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여가가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만족이나 삶의 질 향상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로서 혹은 삶의 동반자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생활의 주요 요소로 그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가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과거 여가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자유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Godbey, 1985) 시간으로서의 여가 이외에 활동으로서의 여가, 마음의 상태로서의 여가, 존재로서의 여가 등 여가에 대

한 개념적 접근이 매우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urphy (1981)는 여가를 노동개념과 시간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자유로운 시간적 의미, 사회도구적 의미, 사회계층적 의미, 고전적 의미, 반공리주의적 의미, 총체론적 의미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Neulinger(1981)는 여가를 마음의 상태로 보고 여가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지된 자유(perceived freedom)’를 강조하면서, 동기의 내적 또는 외적 상황 여부를 구분 요소로 활용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여가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적 정의에 대한 연구로는 De Grazia(1964), Gray(1972), Ellis(1973), Csikszentmihalyi(1975), Tinsley & Tinsley(1986), 임번장(1987), 이종영(1993) 등이 있다. 결국 여가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일이나 개인적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회변동에 따른 여가관의 변화와 여가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여가참여가 증가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여가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사회학습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인 여유 부족, 기대수준과 현실과의 격차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아정체감에 대한 위기, 불안, 갈등, 좌절, 소외 등의 부적응 현상들에 의해 정상적인 여가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전 생애주기에서 가장 급격한 신체적 발육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운동에 대한 욕구도 가장 왕성한 시기이며, 심리적으로도 반항적이고 정열적이며 주관적인 경향이 강해 이에 대한 조정 및 사회적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서의 다양한 여가활동 경험은 학교에서의 지식교육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청소년기 이후의 삶인 성인기와 노년기를 가치있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여가생활은 여러가지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원만치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 비해 사회적 여건이나 정책적 의지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여가체약과 관련된 연구문제를 갖고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청소년 여가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나 문헌연구 수준에 머무는 기술적(descriptive)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특히 여가체약에 관한 연구는 단일문항에 의한 초보적 수준에서 다루어져 왔을 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즉 여가체약의 요인을 나열식으로 배열하여 이에 대한 빈도분포를 제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여가체약의 요인을 유형별로 영역화시켜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여가체약에 관한 연구는 Goodale & Witt(1989), Jackson(1988) 등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의 발표에 의해 빠른 학문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여가의 활성화 대책은 여가의 구성 요소인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여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제약요인을 밝혀내어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에서 여가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청소년 초기에 있어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새로운 기술습득과 재미를 얻기 위해서가 대부분이나, 성장함에 따라 참가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소년 여가연구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 후기에 갈수록 여가참여의 이유는 보다 외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활동 그 자체의 추구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 주종을 이루게 되어, 청소년기 자체에만 관심을 둔 단편적인 연구보다는 성인기 및 노년기와 관련된 연계성있는 심층적인 분석이 요망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이외에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을 중단하게 된 이유도 함께 조사해 봄으로써, 비교분석을 통한 청소년 여가활성화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그밖에 여가참여율, 참여희망도, 참여희망 활동유형 등에 대한 조사도 정책적 기초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여가참여율, 참여희망도, 참여희망 활동유형에 대한 분석

둘째, 청소년 여가제약 요인의 유형에 대한 분석

셋째, 청소년 여가 불참이유와 중단이유에 대한 비교조사

3. 연구의 제한점

청소년의 여가제약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법적 연령인 9세부터 24세까지에 속하는 국민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근로청소년이나 미진학청소년에게 연구결과를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서울시 외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에게도 적용의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실업계 학생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고등학생은 인문계 학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가제약의 유형을 영역화시키는 이론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류한 개인의 내적 제약, 인간상호간의 제약, 구조적 제약이 반드시 영역화의 기본적 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다.

셋째, 여가제약의 복잡성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약요인 혹은 불참이유 및 종단이유에 대한 변수들은 미약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변수 및 여가제약 측정에 대한 척도에 부분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여가제약 연구의 동향과 제약유형

여가제약에 관한 과거 연구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여가활동들과 관련된 항목들을 일상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히 장애의 좁은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즉 자료 분석에 있어서의 이론적 배경의 취약성을 보임으로써 결국 이는 측정된 개념에 대한 명확성의 부족이나 방법론적인 불일치, 빈약한 기술적 연구의 반복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여가제약과 관련된 현상을 과거보다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즉 여가제약에 대한 초기의 개념화 및 경험적 증거에 의한 관점을 이용하여 과거에 밝혀내지 못한 가정과 주제를 비평적으로 조사 연구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단일변인에 의한 분석보다는 총체적이고 집합적인 집단 차원의 경험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고, 선행연구들이 여가제약의 접근방법에서 시간, 돈, 교통수단 등에 대해 부분적으로 시도한 반면 최근 연구들은 개념적이고 방법론적인 불일치 문제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가 학자들은 최근 몇년동안 여가참여의 제약요인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여가제약을 보다 명확하고 신뢰있게 조사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Crawford & Godbey, 1987 ; Jackson, 1988, 1990 ; Crawford, Jackson & Godbey, 1991 ; Mannell & Zuzanek, 1991). 특히 여가 학자들의 주 관심사가 되고 있는 영역은 제약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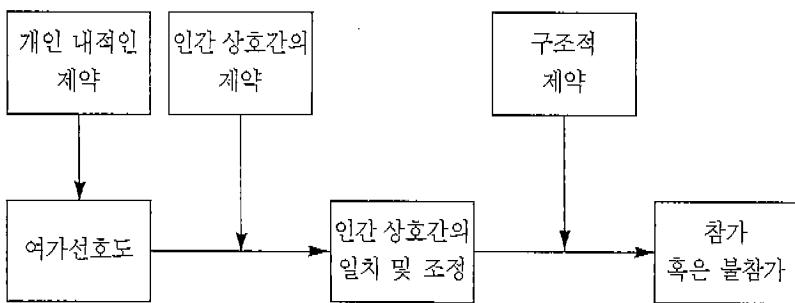
에 대한 이해증진, 구속되어지는 여가의 국면에 대한 문제, 장애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의 분석, 여가계약에 대한 이론적 틀과 모델의 구축, 여가계약 측정과 관련된 항목의 내용과 논의의 범주 등이며 그리고 제약요인의 분석과 측정에 있어서 개선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가계약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홍미부족, 시설, 시간, 비용, 능력, 지식, 기회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되어 왔으나, Jackson(1990)은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비참여 집단은 오직 두개의 유형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즉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를 방해하는 여러 장애요인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집단과 참여를 원하지 않는 집단). 둘째,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구부족에 대한 설명을 오직 홍미부족이라는 변인 하나로만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홍미부족을 표현하는 모든 개인들은 다른 제약요인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점. 셋째, 제약은 선호와 참여 가운데서 오직 방해만 하는 즉 전형적으로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져 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즉 여가에 대한 제약은 기술이나 관심부족과 같은 내부적 요인일 수도 있고, 시설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외부적 요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여가계약 요인들은 참여에 대한 물질적 장애 예를 들면 비용의 문제 등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여가에 대한 제약은 객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감성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Reid(1988)는 여가계약의 유형을 경제적 요인, 체계전달 요인, 심리적 요인 등으로 분류한 바 있고, Samdahl & Jukubovich (1993)은 제약의 유형을 시간, 비용, 건강, 사회적 관계의 영역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여가계약 연구분야에서 가장 중

요한 발전 중의 하나는 인간의 여가를 결정짓는 행동에 제약적인 요인이 어떻게 개입됐는가에 대한 복잡한 일련의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발간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험적 자료에만 의지려는 이전의 이론적 연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여가제약의 구조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론적 토대 위에서 경험적 결과를 해석하려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사실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rawford, Jackson and Godbey(1991) 등은 과거 여가제약의 모델이 과정 중심적이라기 보다는 정적이기 때문에 제약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여가제약의 모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여가제약의 유형을 한가지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Henderson, Stalnaker, Taylor(1988) 등은 개입적(intervening)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Crawford et al.(1991)은 이를 구조적 제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외에도 개인의 내면적인 그리고 인간상호간의 제약 요인(선행적인 제약 요인)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들은 여가제약에 대

한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사고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여러가지 다른 유형의 제약 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앞의〈그림 1〉에서 개인의 내적인 제약은 여가를 좋아하는 것과 여가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보다는 여가를 좋아하는 마음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우울, 걱정, 여가활동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이 이에 속하며, 여가선흐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지거나 타협이 이루어질 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상호간의 제약은 각 개인들 간의 인간관계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인들을 의미하며, 개인들은 여가활동에 같이 참여할 친구나 파트너를 찾지 못하게 될 때 인간상호간의 제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과거의 연구에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었던 구조적 제약을 접하게 되면 인간상호간의 제약은 극복되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조적 제약은 여가선흐와 참여 사이에서 방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재정적 자원, 시간과 기회의 문제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구조적 제약이 없어지면 여가참여는 가능하게 되며, 특히 구조적 제약은 개인의 사회적 특권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Crawford et al.(1991)에 의하면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구조적 제약에 관해 조사를 했으며, 연구 대상들은 여가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인 그리고 인간상호간의 제약을 극복한 집단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내적, 인간상호간의 제약 요인인 선행적 제약의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조적 제약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결국 구조적 제약에 대한 의견 조차 발표할 욕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행적 제약 요인이

없다면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거나 이에 대한 활발한 의사표시를 개진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갖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내적인 제약 요인은 잠재적인 여가참여자를 감소시키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회 조차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비슷하게 개인의 구조적 제약인 시간적 여유 등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개인의 내적인 제약과 관련된 개인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여가에 관한 제약 연구의 명백한 개념 부족의 증거라고 하면서, 개인의 내적인, 인간상호간, 구조적 제약에 대한 개념은 여가에 대한 제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의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개인의 내적인 제약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제약인 인간상호간 혹은 구조적 제약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진다면 ‘흥미부족’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이전의 연구들은 개인의 내적인 제약과 관련된 사람들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개인의 내적인 제약에 의해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나 조금 받은 사람들은 구조적 제약에 보다 관련이 있을 것이다.

2. 여가제약과 극복의 문제

여가제약 극복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Henderson, Bedini, Hecht, Schuler, 1993 ; Samdahl & Jekubovich, 1993 ; Scott, 1991)에 의하면 ‘사람들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창조적이

고 성공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참여와 제약은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아니며 일부 여가에서 처럼 공정적 일지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Jackson(1993)은 참여는 의존적이고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한 극복이라고 진술하면서, 그러한 극복은 참여를 중단시키기 보다는 수정하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Crawford et al.(1991) 등은 여가에 대한 제약적인 요소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계속 참가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Scott(1991)에 의하면 여가제약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여가에 참여하게 될 때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힘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약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약 요인이 여가를 불참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결과는 많은 가능성있는 결과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대신 사람들은 여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여가제약의 극복방안으로 제한된 기회에 대한 정보획득, 집단 구성원과 개인의 시간을 맞추기 위한 여가계획의 변경 노력, 새로운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기술개발 등을 들고 있다.

Kay & Jackson(1991) 역시 많은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문제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면서 기회의 인식, 기술습득, 여가참여의 범도와 시간대, 여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의 다른 부분을 수정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제약의 효과가 반드시 여가불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연구결과 제약 요인으로 인해 여가에 불참하는 사람은 매우 적게 나타났으

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고 여가참여 기회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데서 더욱 잘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이유와 시간적인 문제를 주요 제약 요인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인 제약을 이유로 든 사람 가운데 실제 여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11%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가제약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는 여가참여를 줄여나가고 있고, 11%는 여가참여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으며, 8%는 가장 저렴한 방법의 여가참여 기회를 찾는데 노력하고 있고, 4%는 여가참여를 위해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71%는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여가참여 시간을 줄이고 있으며, 27%는 여가를 위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고 했으며, 2%는 그들의 업무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제약요인을 극복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여가는 제약요인이 없을 때 참여하는 여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여가참여는 제약의 상실에 의존하기보다는 제약을 통한 극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enderson(1991)은 여가제약을 극복하는 전략과 관련된 사람들의 유형을 여가참여에 소극적인 사람(passive responders), 시간을 줄이면서 참여하는 사람(achievers), 방법을 전환하지 않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attempters), 활동의 형태를 완전히 변형하여 참여하는 사람(changers), 다른 여가를 통해 만족하는 사람(vicarious participants)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여가관련 연구에서 여가불참보다 제약 요인에 대한 극복이 중요한 주제로 계속 취급된다면, 몇몇 연구자들(Kay & Jackson, 1991 ; Shaw, Bonen & McCabe, 1991)이 여가불참 이유와 실제 여가참여 사이에는 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놀

랄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 의해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더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Shaw et al.(1991)은 주장하면서, 이는 사람들이 여가참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며 능동적으로 제약요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여가제약에 대한 극복에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기후나 지형적인 조건 등으로 인한 절대적인 참여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에는 참여욕구나 관심은 쉽게 소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구조적 제약에 대한 극복의 힘이 크다면 어떠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여가참여는 지속될 것이지만, 제약요인이 매우 강하거나 절대적인 경우에는 그 결과는 불참이 될 것이다. 한편 여가제약과 관련하여 시간이용을 조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여가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의 다른 국면을 재편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쨋든 여가참여 제약 요인은 여가불참보다는 변형된 형태의 여가참여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것은 분명하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제약요인을 경험하였으며,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였는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제약 요인의 구체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전략이 어떻게 채택되어져야 하는가 혹은 제약 요인과 동기는 여가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여가 불참이유와 중단이유

여가산업과 관련된 경영자에게는 새로운 회원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회원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업

무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참여 중인 여가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이유를 밝혀내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연구일 것이다. 그러나 여가활동 중단이유나 혹은 중단이유와 불참이유를 심층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불참이유와 중단이유는 다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Hultsman(1993)은 새로운 활동 참여의 제약 요인으로 참여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개인적인 기술부족 등을 들은 반면 중단이유로는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활동 규칙이 싫어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중단이유를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성인의 경우에는 가정이나 업무와 관련된 일, 파트너의 부족,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시설 사용, 설비 사용료와 관련된 문제가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영향, 수송의 문제, 지도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기술부족 등이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Jackson & Dunn(1988)은 시설 사용료의 문제는 새로운 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신체적인 문제는 중단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Searle & Brayley(1990)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회부족을 활동 중단이유로는 시간부족, 건강악화, 흥미상실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참여비용, 참여 장소의 불확실성, 참여 동반자의 부재, 교통수단의 부족, 충분한 기술 부족 등은 이전에 참여한 활동들을 중단하게 된 이유보다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할 것이 많은 것은 새로운 활동 참여의 장애이유 보다는 활동 중단이유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새로운 여가활동 참여의

제약 요인과 참여하고 있는 활동의 중단요인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다양한 국면에서도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작용한다고 간주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제약 요인에 관한 내적인 동질성의 문제가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시설 사용료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신체적 결함은 참여를 중지해야 하는 이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만약 내적 동질성이 존재한다면 제약 효과를 조사하려고 선택된 기준 변인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적 동질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 관점에서 불참여를 설명할 수 있다거나 혹은 불참여에 대한 설명 변인으로 사용될 수 없다거나 하는 등의 단정은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가행동의 한 국면과 관련된 제약 요인의 조사는 어떤 다른 국면에서도 동일한 결과의 예언적 변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음을 연구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생 각각 200명씩 8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741명이었으며, 이중 설문지 내용이 부실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것은 제외하고 636명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에서 비교적 중상 이상의 계층이 살고 있는 강남지역과 종하이하의 계층인 강북지역으로 구분하여 임의표집하였으며,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계
남	160	160	320
여	156	160	316
계	316	320	636

2. 조사 도구

청소년들의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유형과 여가 불참 이유 및 중단이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약 유형에 대한 Godbey et al.(1993)의 질문 문항과 불참이유 및 중단이유에 대한 Hultsman(1993)

과 Jackson & Rucks(1993)의 문항을 기초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질문지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검사방법은 Cronbach's α 로 이를 이용하여 얻어진 제약유형의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제약 유형의 신뢰도 계수

유 형	신뢰도 계수(α)
개인의 내적 제약	.5673
인간상호간의 제약	.6396
구조적 제약	.6071

한편, 본 연구에서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은 인자타당도(factorial validity)로서 제약유형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개인의 내적인(intrapersonal) 변인, 인간 상호간의(interpersonal) 변인, 구조적(structual) 변인의 문항이 각 요인 I, II, III에 높은 부하치를 보이면서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이 3개의 요인이 설명해주는 총 분산은 36.7%로서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60%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제약의 복잡성에 비해 각 문항의 변인의 수가 적고, 또한 요인의 축약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자들은 개인의 내적, 인간 상호간, 구조적 요인의 각 유형별로 7개씩 총 21문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정도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각 유형에서 애매하거나 특정 요인에 모이지 않는 문항 6개는 제거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제거된 문항은 개인의 내적 변인에서는 ‘창피함’, ‘불편함’이며, 인간 상호간의 변인에서

〈표 3〉 제약 유형에 대한 직교회전후의 요인행렬표

변 인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개인의 내적인 변인			
친구의 동의	.56743	.22406	-.26589
가족의동의	.60677	.13642	-.07624
종교적문제	.44935	.06701	-.12637
개인적부담	.57380	-.15073	.23648
기술적문제	.32385	.28748	.18444
인간 상호간의 변인			
동료 거주지의 문제	.00568	.65980	.05791
동료의 경제적 문제	.23704	.32889	.14051
동료의 시간적 문제	.09669	.48276	.12477
동료의 기술적 문제	.03431	.64207	-.18016
동료의 수송 수단	.01556	.62586	.12727
구조적 변인			
시설의 봄빔 정도	.23471	.10601	.47031
다른 활동의 참여 여부	-.02866	.28223	.52773
활동의 유용성	.58314	-.16957	.39682
시설의 편리성	.10526	.07168	.57655
시간적 문제	-.02586	.01748	.74421
고유값	2.47936	1.59905	1.41989
분산의 백분율	16.5	10.7	9.5
누적 백분율	16.5	27.2	36.7

는 ‘동료의 잡무’, ‘동료의 활동에 대한 인지’, 그리고 구조적 변인에서는 ‘수송수단’, ‘사회의 경제적 여건’ 등이며, 이러한 문항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21개의 문항은 반응에 대한 평의를 측

이기 위하여 부정적인 문항과 긍정적인 문항을 섞어가며 전체적인 순서를 무작위로 배열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청소년들의 여가참여 제약유형과 여가 불참이유 및 중단이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연구 대상에게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각 중고등학교 교사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한편 질문지의 응답 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SPSS 프로그램을 활용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기법은 FACTOR ANALYSIS, MEAN, SD, Chi-Square TEST 등이다.

IV. 결과 분석

1. 여가활동 참여율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여가참여율은 53.1%로 나타났다. 즉 실업계 고등학생을 제외한 전체 학생청소년의 반 이상이 어떠한 형태로이든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중 고등학생별 및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여가활동 참여율

(단위 : %)

구 분	중학생	고등학생	평 균
남	56.0	51.3	53.7
여	50.0	55.0	52.5
평 균	53.0	53.2	53.1

〈표 4〉에 의하면 남자 중학생(56.0%), 여자 고등학생(55.0%), 남자 고등학생(51.3%), 여자 중학생(50.0%)의 순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가활동 참여 희망종목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가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7.6%로 나타났으며, 참여하고 싶은 희망 활동을 직접 기재하게 하여 순위별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즉 스포츠(18.6% : 아래에 제시되는 스포츠 종목을 제외한 모든 활동), 수영(11.9%), 볼링(7.5%), 음악활동(6.3%), 농구(6.1%), 테니스(6.1%), 검도(4.9%), 축구(3.7%), 여행(3.0%), 컴퓨터(2.6%), 기타(29.3%)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 유형 중 58.8%가 스포츠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여가활성화 방안에 스포츠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학생들은 농구, 축구, 컴퓨터를 여학생들은 수영, 볼링, 테니스, 검도, 음악활동 등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들은 농구, 축구, 볼링을 고등학생들은 수영, 테니스, 여행, 컴퓨터, 음악활동 등을 더욱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는 중고등학생별·남녀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위에서 제시된 스포츠 종목이외에 청소년들은 스케이트, 탁구, 포켓볼, 에어로빅, 출넘기, 스쿼시, 패러글라이딩, 스키스쿠버,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라켓볼, 승마, 등산, 스키, 자전거타기, 수상스키, 배드민턴,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기타 활동으로는 연극, 영화감상, 미술활동, 봉사활동, 낚시, 노래방, 천체관측, 독서, 만화그리기, 사진촬영, 오락, 조립활동, 서예, 과학활동, 바둑, 그룹사운드, 전통문화활동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구창모(1995)의 「성인의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성인의 경우에는 스포츠(12.1%), 수영(10.7%), 봉사활동(10.0%), 등산(8.4%), 테니스(8.0%), 골프(6.5%), 볼링(4.7%), 낚시(4.2%), 여행(3.2%), 기타(32.2%) 등으로, 기타 활동으로는 서예, 악기활동, 외국어 배우기, 미술활동, 스키, 고적탐방, 스키스쿠버, 가족놀이 등으로 나타나 청소년

과는 다른 여가 양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여가제약 유형의 분석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별 제약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여가제약 유형별 평균 및 표준편차

제 약 유 형	평 균	표준편차
개인의 내적 제약	2.64	0.44
친구의 동의	2.72	0.77
가족의 동의	2.58	0.74
종교적 문제	2.31	0.87
개인적 부담	3.02	0.73
기술적 문제	2.55	0.78
인간 상호간의 제약	2.29	0.43
동료 거주지의 문제	2.07	0.70
동료의 경제적 문제	2.31	0.70
동료의 시간적 문제	2.36	0.76
동료의 기술적 문제	2.31	0.71
동료의 수송 수단	2.37	0.75
구조적 제약	2.80	0.42
시설의 불편 정도	3.01	0.69
다른 활동의 참여 여부	2.52	0.71
활동의 유용성	3.09	0.71
시설의 편리성	2.59	0.77
시간적 문제	2.77	0.71

Note : 1=가장 낮은 제약 점수, 4=가장 높은 제약 점수

위의 〈표 5〉에서 보듯이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1점에서 부터 4점 까지로 범주화하여, 평균 1점은 여가제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평균 4점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제약을 인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5〉의 결과에 의하면 구조적 제약(2.80), 개인의 내적 제약(2.64), 인간 상호간의 제약(2.29)의 순으로 나타나, 이는 Godbey et al.(1993)의 연구결과인 구조적 계약(3.03), 인간 내적 제약(2.32), 인간상호간의 제약(2.20)의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여가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구조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개인의 내적 요인이나 인간 상호간의 요인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창모(1995)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구조적 제약(2.63), 개인의 내적 제약(2.59), 인간상호간의 제약(2.29)으로 나타나, 평균 점수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역시 순위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 구조적 제약이 일관성 있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면서 개인의 내적 제약, 인간상호간의 제약의 순으로 서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3가지 유형의 제약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며,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제약 요인들도 존재할 수 있음을 연구자들은 주지해야 할 것이다.

4. 여가 불참이유와 중단이유의 비교 조사

청소년들의 여가 불참이유와 중단이유에 대한 비교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여가 불참이유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80.3%)’, ‘시간부족(79.9%)’, ‘비용

〈표 6〉 여가 불참이유 및 중단이유

중 고	χ^2	합계	순위	이 유	순위	합계	중 고	χ^2
74.9	85.5	11.07**	80.3	1 시간대 불일치	2	64.7	57.7	71.9 13.19**
73.1	86.5	17.52**	79.9	2 시간 부족	1	71.5	62.6	80.6 23.75**
54.8	55.2	NS	55.0	3 비용 부담	6	30.3	30.8	29.8 NS
51.8	56.2	NS	54.0	4 정보 부족	-	-	-	-
41.3	36.1	NS	38.7	5 활동장소 모름	-	-	-	-
34.8	31.2	NS	33.0	6 창피함	12	20.0	23.0	17.0 NS
34.5	30.6	NS	32.5	7 기술 부족	9	23.3	25.7	20.8 NS
29.4	34.6	NS	32.1	8 근접성	5	32.8	32.2	33.4 NS
32.3	31.6	NS	31.9	9 참여 동료	11	20.3	20.5	20.2 NS
33.9	27.5	NS	30.7	10 시설 봄밤	7	26.2	30.8	21.4 6.83**
24.1	33.3	6.49**	28.8	11 가족 불친성	8	23.6	22.0	25.3 NS
17.9	21.9	NS	19.9	12 수송 수단	-	-	-	-
16.1	21.0	NS	18.6	13 연령 문제	16	9.7	12.1	7.1 4.15*
21.3	14.0	5.69*	17.6	14 지도자 싫음	13	18.8	21.5	16.0 NS
14.2	15.9	NS	15.0	15 성별 적합 프로그램	17	6.9	6.9	6.8 NS
15.2	14.9	NS	15.0	15 규칙 어려움	15	17.1	17.2	17.1 NS
12.6	10.8	NS	11.7	17 많은 활동의 참여	10	23.2	23.0	23.3 NS
8.1	3.2	7.07**	5.6	18 동료의 싫어함	18	5.4	7.3	3.4 4.30*
-	-	-	-	홍미 부족	3	42.7	43.6	41.7 NS
-	-	-	-	효과 부족	4	38.1	36.1	40.3 NS
-	-	-	-	지도자 변경	14	18.0	21.7	14.1 5.86**

N=636. P<0.05 *, P<0.01 **

Note : χ^2 의 점수는 중/고 × 예/아니오에 대한 결과(표 6의 값은
 ‘예’에 대한 응답율을 의미함)

부담(55.0%)’, ‘정보부족(54.0%)’, ‘활동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3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단이유로는 ‘시간부족(71.5%)’,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64.7%)’, ‘흥미부족(42.7%)’, ‘효과 부족(38.1%)’, ‘활동 장소의 거리 문제(32.8%)’의 순으로 나타

났다. 특히 ‘창피함’에 관한 문제나 ‘많은 활동의 참여 때문에’에 관한 문항에서는 불참이유와 중단이유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단이유 중에는 흥미나 효과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고등학생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항으로는 불참이유의 경우 ‘시간부족(중 : 73.1%, 고 : 86.5%)’,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중 : 74.9%, 고 : 85.5%)’, ‘동료가 싫어하기 때문에(중 : 8.1%, 고 : 3.2%)’, ‘가족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중 : 24.1%, 고 : 33.3%)’, ‘지도자가 싫어서(중 : 21.3%, 고 : 14.0%)’ 등 이었다. 중단이유의 경우에는 ‘시간부족(중 : 62.6%, 고 : 80.6%)’,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중 : 57.7%, 고 : 71.9%)’, ‘시설이 불비기 때문에(중 : 30.8%, 고 : 21.4%)’,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중 : 21.7%, 고 : 14.1%)’, ‘동료가 싫어하기 때문에(중 : 7.3%, 고 : 3.4%)’, ‘연령의 문제(중 : 12.1%, 고 : 7.1%)’ 등 이었다.

또한 불참이유와 중단이유에 대한 남녀간의 조사 결과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항으로는 불참이유의 경우 ‘정보부족(남 : 47.8%, 여 : 61.6%)’, ‘기술부족(남 : 26.4%, 여 : 37.7%)’ 등 이었으며, 중단이유의 경우에는 ‘동료가 싫어하기 때문에(남 : 6.9%, 여 : 2.5%)’, ‘기술부족(남 : 19.2%, 여 : 26.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Jackson & Rucks(1993)의 연구와 구창모(1995)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Jackson & Rucks(199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참이유로는 ‘시간대 불일치’, ‘시간 부족’, ‘비용 문제’, ‘활동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순으로, 중단이유로는 ‘시간대 불일치’, ‘많은 활동에의 참여’, ‘시간 부족’, ‘흥미 상실’, ‘비용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창모(1995)의 연구 결과에

서는 불참이유와 중단이유 모두 청소년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남녀간의 차이에서는 불참이유의 경우 ‘활동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남 : 18.3%, 여 : 38.1%)’, ‘가족의 반대(남 : 9.2%, 여 : 20.7%)’, ‘비용 문제(남 : 47.5%, 여 : 63.0%)’, ‘기술 부족(남 : 17.6%, 여 : 30.0%)’, ‘시간 부족(남 : 77.5%, 여 : 64.7%)’ 등에서, 중단이유의 경우 ‘장소의 거리 문제(남 : 19.2%, 여 : 41.7%)’, ‘많은 활동에의 참여(남 : 20.8%, 여 : 41.4%)’, ‘활동의 규칙(남 : 6.7%, 여 : 16.4%)’, ‘창피함(남 : 6.7%, 여 : 15.7%)’, ‘기술 부족(남 : 10.0%, 여 : 18.7%)’, ‘가족의 반대(남 : 10.8%, 여 : 19.4%)’ 등으로 나타나, 청소년보다 성인들의 경우 남녀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항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V. 맷음말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여가참여 제약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동향과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아 보았다. 또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 청소년 636명을 대상으로 여가제약 유형에 대한 분석과 여가 불참이유 및 중단이유에 대한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특별한 여가활동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여가에 관심을 갖고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인과의 관계는 규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인 제약 요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여가 제약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제약(intrapersonal constraints), 인간 상호간의 제약(interpersonal constraints), 구조적 제약(structual constraints)의 규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사람들이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흥미가 없다고 표현한 사람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선행연구들은 실제는 그들의 여가가 가장 많은 제약을 받은 것을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명백하게 흥미부족의 개인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 제약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제약 요인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여가에 대한 제약의 개념을 조작하는데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변인들의 발견은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신뢰할 만한 제약 요인들은 여가제약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묘사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측정도구의 척도 개발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세련된 접근법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구조적 제약에 관한 변인들은 물질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는 반면, 개인의 내적 제약에 관한 문항은 다소 애매모호하고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따라서 여가제약 유형간의 이해를 위해 각 제약 요인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그들의 실제 생활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가제약에 관한 인지의 안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한 재조사도 요구된다. 이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차이점인지를 확인하기에는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가제약에 관한 미래 연구에 있어서는 제약의 유형 및 범위 결정에 관한 새로운 시도와 3가지 유형의 제약 결과의 차이점이 어느 곳에서 존재하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며, 그것과 함께 어떠한 행동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여가 유형에 따라 제약 요인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혹은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밝혀내는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여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유형이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작은 유사점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결과 분석에 의해 나타나는 제약 경험이나 인지의 공통 부분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 일지라도 여가 변화 패턴의 이해를 불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수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제약 요인은 무엇이고 그 제약 요인들과 통계적으로 연관된 변인들은 무엇인가가 아닌, 그 제약 요인들이 사람들의 여가 결정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여가 불참이유 및 중단이유의 비교 조사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청소년 여가정책은 불참이유에 대한 조사에 의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중단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현재 여가활동에 참여중인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흥미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의 균접성과 복잡성의 문제 등을 불참이유 보다는 중단이유에 더 가까운 요인들로 이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 및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여가제약과 불참이유 및 중단이유의 종합적인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요인들의 내적 동질성(internal homogeneity)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여가행동의 한 국면과 관련된 여가제약 요인이나 불참이유 및 중단이유가 다른 국면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작용하는 예언 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가 불참이유로 비용의 문제를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강하게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매우 약할 뿐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인과 청소년의 차별화된 가격 구조의 이유 뿐 아니라, 성인들이 청소년에 비해 재정적인 문제를 더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서로 교환할 수 없는 것이며, 제한된 여가는 내적으로 차별화된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참 고 문 헌

- 구창모(1995). A study on leisure constraints of adult. The "95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 이종영(1993). 여가와 스포츠. 한국체육대학교 미간행 교재.
- 임번장(1987).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의 사회심리학. 미간행 논문.
- Crawford, D. W., Jackson, E. L., & Godbey, G.(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 309–320.
- Godbey, G.(1985). Leisure in your life : an exploration. State College, Pennsylvania : Venture Publishing, Inc.
- Godbey, G., Crawford, D. W., & von Eye, A.(1993). Nature and process of leisure constraints : An empirical test. *Leisure Sciences*, 15, 99–113.
- Henderson, K.(1991). The contribution of feminism to an understanding of leisure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3), 228–243.
- Henderson, K. A., Stalnaker, D., & Taylor, G.(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recreation and gender role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69–80.
- Hultsman, W. Z.(1993) Is constraints leisure an internally homogeneous concept? An exten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 319–334.
- Jackson, E. L.(1990). Variation in the desire to begin a leisure

- activity : Evidence of antecedent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 55–70.
- Jackson, E. L.(1993). Recognizing patterns of leisure constraints : Results from alternative analys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 129–149.
- Jackson, E. L., & Dunn, E.(1988). Intergrating ceasing participation with other aspects of leisure behavior.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31–45.
- Jackson, E. L., & Rucks, V. C.(1993). Reasons for ceasing participation and barriers to participation : Further examination of constrained leisure as an internally homogeneous concept. *Leisure Science*, 15, 217–230.
- Jackson, E. L., & Rucks, V. C.(1995).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1), 85–105.
-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1993).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 15, 1–11.
- Kay, T., & Jackson, E. L.(1991) Leisure despite constraints : The impact of leisure constraints on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301–313.
- Murphy, J. F.(1981). Concepts of lesiure, 2nd ed. N.J. : Prentice-Hall, Inc. PP. 160–161.
- Neulinger, J.(1981) To lesiure : An introduction. Boston : Allyn & Bacon.
- Samdahl, D. M., & Jekubovich, N.(1993). Constraints and constraint negotiation in common daily living. Paper pre-

- sented at the Seventh Canadian Congress on Leisure Research, University of Manitoba, Winnipeg, Manitoba.
- Scott, D.(1991). The problematic nature of participation in contract bridge : A qualitative study of group-related constraints. *Leisure Science*, 7, 227–249.
- Shaw, S. M., Bonen, A., & McCabe, J. F.(1991). Do more constraints mean less leisur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aints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286–300.

부 록

청소년 여가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1989년에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개원한 이래, 1993년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새롭게 확대·개편된 문화체육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개발원에서는 이번에 청소년 여가참여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스포츠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해야 할 청소년기의 중·고등학생들이 여러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여가참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여가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나 제약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냄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가참여시 느꼈던 생각들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청소년은 여가참여 제약요인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솔직하게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 6

한국청소년개발원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여기에서의 여가란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일이나 개인적·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어떠한 형태이든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_____ (1) 예
_____ (2) 아니오

2. 귀하께서 현재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있습니까?

- _____ (1) 예([2-1])로 가시오
_____ (2) 아니오

2-1. 귀하께서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있다면 한가지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각 개인의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에 제시되는 이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난에 V표를 해주십시오.

전혀 중요	중요하지 하지 않다	중요하다 않다	중요하다
-------	---------------	------------	------

(1) 사용료 등

비용의 문제

(2) 학교나 집

과외 거리
등 근접성
문제

(3) 학업 이나

가사, 일 등
으로 인한
시간적인
문제

(4) 시설의 문제

(5) 성격 및 태

도 등 심리

적인 이유

와 관련된

개인적 문제

(6) 인간관계 등

사회적 고

립의 문제

4. 다음의 내용들중 귀하께서 참여하고 싶은 새로운 여가활동이 있더라도 참여하지 못 하는 이유와 합당한 것이 있다면 해당하는 난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아니다

(1) 비용의 부담 때문에

(2) 가족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3) 활동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4) 아직 어리기 때문에

(5) 정보부족 때문에

(6)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7) 학업, 가사, 일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 (8) 나의 성별(여성·남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_____
- (9) 기술부족 때문에 _____
- (10) 너무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_____
- (11) 지도자가 싫었던 경험때문에 _____
- (12) 활동장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_____
- (13) 내가 참여하는 것을 동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서 _____
- (14) 활동의 규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_____
- (15) 같이 참여할 동료가 없기 때문에 _____
- (16) 활동장소에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_____
- (17) 웬지 창피하고 어색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_____
- (18)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_____

5. 다음의 내용들 중 귀하께서 과거에 참여했던 여가활동을 중단하게 된 이유와 합당한 것이 있다면 해당하는 난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아니다

(1) 비용의 부담 때문에

(2) 활동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3) 활동 참여가 나에게 별 의미나

효과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4) 시간대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5) 학업, 가사, 일 등으로 인해

시간이 없기 때문에

(6) 활동 장소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7) 기술부족 때문에

(8) 가족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9)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 지도자가 쉽어서

(11) 지도자가 다른 곳으로

갔거나 바뀌었기 때문에

(12) 같이 하면 동료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13) 내가 참여하는 것을 동료들이
싫어 하는 것 같아서

(14) 나의 성별(남/여)에 맞지 않아서

(15) 활동의 규칙이 싫거나 어렵기 때문에

(16) 웬지 창피하고 어색한 생각이 들어서

(17)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18) 새로운 다른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6. 다음은 귀하께서 새로운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의 내적인 이유, 대인관계와 관련된 이유, 사회의 구조적 상황적 이유 등으로 구분한 내용들입니다. 귀하가 느끼는 이유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6-1] 개인의 내적인 이유

매 우	그렇지	그렇지	매 우
그렇다	않 다	않 다	그렇지

(1) 나는 부끄러움을 잘타 _____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2) 나는 나의 가족들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열심히 참여하겠다.

- (3) 나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활동이라면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 _____
- (4) 나는 나의 친구들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열심히 참여하겠다. _____
- (5) 나는 나의 종교적인 믿음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열심히 참여하겠다. _____
- (6) 나는 나를 의식하게 하는 부담스러운 활동이 아니라면 더욱 적극 참여하겠다. _____
- (7) 나는 많은 기술을 요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열심히 참여하겠다. _____

[6-2] 대인관계와 관련된 이유

매 우	그렇다	그렇지 않 다	매 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 (1)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_____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새
 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가 없다.
- (2)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_____
 나와 함께 새로운 활동
 에 참여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
- (3)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_____
 나와 함께 새로운 활동
 에 참여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
- (4)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_____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
 와 함께 새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다.
- (5)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_____
 은 그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활
 동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 (6)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_____
 나와 함께 새로운 활동
 에 참여할 만큼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
 다.
- (7)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_____
 나와 함께 새로운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수송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6~3] 사회의 구조적 상황적 이유

	매 우 그렇다	그렇지 않 다	매 우 그렇지 않 다
(1) 나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 설들이 불비지 않는다 면 열심히 참여하겠다.	_____	_____	_____
(2) 나는 다른 할 일이 있 다면 새로운 활동에 참 여하지 않겠다.	_____	_____	_____
(3) 나는 수송수단이 있다 면 새로운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_____	_____	_____
(4) 나는 내게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새로 운 활동에 적극 참여하 겠다.	_____	_____	_____
(5) 나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설들 이 편리하지 않다면 새 로운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	_____	_____	_____
(6) 나는 시간이 없다면 새 로운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	_____	_____	_____
(7) 나는 돈이 있다면 새로 운 활동에 적극 참여하 겠다.	_____	_____	_____

7. 다음은 여러분 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7-1]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7-2] 귀하의 현재 소속은?

(1) 중학생

(2) 고등학생

[7-3] 귀하의 부모님 생존 여부는?

(1) 부모님 모두 생존

(2) 아버님만 생존

(3) 어머님만 생존

(4) 부모님 모두 안계심

[7-4] 귀하의 가정의 한달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의 수입을 모두 합쳐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50만원 미만

(2)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 300만원 이상

[7-5]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버님

어머님

(1) 국졸 이하

(1) 국졸 이하

(2) 중졸

(2) 중졸

(3) 고졸

(3) 고졸

(4) 대졸 이상

(4) 대졸 이상

[7-6] 귀하의 아버님의 직업은(아버지이 안계시면 가구주)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만약 아래에 예시한 직명에서 해당되는 직종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가장 유사한 직종을 선택하여 한가지만 V표를 해주십시오.

전 문 직: _____ (1) 교수,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언론인, 성직자, 소설가, 음악가, 화가 등
: _____ (2) 기타 위 (1)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직 종사자

전문기술직: _____ (3) 건축사, 엔지니어, 비행기조종사, 항해사, 전산기술자
: _____ (4) 기타 위 (3)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기술 관련직

관리사무직: _____ (5) 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사장, 임원, 장성급 군인
: _____ (6)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중간간부직, 영관급 군인
: _____ (7) 기타 위 (5,6)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회사원 등 사무직 및 군인

판매직: _____ (8) 제품판매점, 대리점, 서점, 보험부동산 증권관련 판매업소 경영자
: _____ (9) 위 (8)의 업소에 고용된 근로자, 기타 판매관련직

서비스직: _____ (10) 음식점, 숙박업소, 이발소, 미용원, 세탁소 등 서비스업 경영자
: _____ (11) 위 (10)의 업소에 고용된 근로자, 기타 서비스직

생 산 노 무 직: _____ (12) 자격증을 소지한 축련노동자,
기능공, 운전기사 등

: _____ (13) 기타 (12)에 포함되지 않는 생
산노무직

농 어 업: _____ (14) 농지 4천평 이상 보유 농민, 선
박을 보유한 어민

: _____ (15) 기타 위 (14)에 포함되지 않는
농어민

무 직: _____ (16) 현재 생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